

인터뷰

녹색성장을 위한 포장기술 세미나

# 2010년도 포장기술사 합격자

Packaging Professional Engineer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김기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제90회 기술사 자격시험 결과 총 7명의 포장기술사가 합격했다고 전했다.

올해 탄생한 포장기술사는 ▲ (주)테크팩솔루션 박진호 차장 ▲ 삼성전자 김동중 수석연구원 ▲ 한국중량물포장 박영철 대표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재영 과장 ▲ KANG DI TRADING 이근중 지사장 ▲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양제우 책임연구원 ▲ 대상 패키지연구센터 박종원 매니저이다.

포장기술사는 포장분야 최고 기술전문가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포장의 기술적 발전과 적합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 포장기술사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포장 문화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도 포장기술사 합격자들의 수상소감 및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 사회적 책임으로 친환경 솔루션 제시



박진호

(주)테크팩솔루션 차장

“포장기술사에 합격하여 기쁩니다.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고, 낙방도 한 경험이 있어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던 집사람과 주위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진호 차장은 (주)테크팩솔루션에서 PET Bottle의 생산, 품질관리, 제품개발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 PET Bottle 사용 고객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박 차장은 테크팩솔루션(구 두산테크팩)이 PET 뿐 아니라 유리병, Can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국내 명실상부한 종합패키지 메이커이다 보니, 유리, CAN, PET라는 비중 있는 포장재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포장기술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준비하게 됐다고 밝힌다.

포장기술사의 준비기간 동안 지금까지 접했던 부분이 전체 포장산업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박 차장은 비 전문분야였던 종이포장 등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다. 그는 포장이 결국 제품을 안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겠지만 그 목적과 기능 그리고 포장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호 차장은 포장기술사 시험에 낙방해 본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첫 회에 낙방을 하면 추후 시험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시험 회수를 늘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진호 차장은 포장기술사가 된 만큼, 포장기술사라는 명칭에 부끄럽지 않도록 포장기술 습득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포장산업이 일부에서 반환경적이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할 계획이다.

현재의 포장은 환경적인 측면과 마케팅측면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박 차장. 그는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돌릴 수 없는 ‘합의’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며 포장인, 포장업체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인 포장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란 어려운 만큼, 앞으로 자긍심 있는 포장기술사가 되겠다고 밝힌 박진호 차장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포장개선 및 효율화 통해 기업발전 기여



김동중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제90회 기술사 자격시험 결과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김동중 수석연구원은 유럽 출장 중 합격 소식을 들어 감회가 남달랐다고 전한다.

“포장개발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그 결실로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한 고3 아들과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도 기쁩니다.”

김 수석 연구원은 “포장기술사 자격 획득으로 좀 더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마음과 함께 포장인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 Visual Display 제품의 포장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1993년부터 포장업무를 맡

아 컬러 TV, 모니터, Projection TV, PDP TV, LCD TV, LED TV의 포장개발을 맡았고 최근에는 품질부서로 이동하여 물류개선과 포장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1995년 1년 동안 포장전문교육을 수강하면서, 당시 교육 강사였던 김청 회장, 이명훈 소장의 강의를 듣고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는 김동중 수석연구원.

그는 포장기술사 준비과정에서 비전문분야였던 연포장, 식품포장 등이 어려워 틈틈이 기술서적과 협력회사를 현장 방문해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선임 기술사들의 공부 방향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다고 회고했다.

김동중 수석연구원은 포장기술사 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포장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덧붙여 회사내 업무 계획 등과 맞물리지 않도록 시험 일정이 3월 이후로 늦춰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장 산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년 또는 격년으로 업계의 기술관련 연구 발표회를 정례화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포장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장은 너무 많음에도 인력 부족으로 방치되어 기업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곳이 많다고 토로하는 김동중 수석연구원. 그는 앞으로 포장 기술사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포장개선 및 효율화를 통해 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연구하여 한국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김동중 포장기술사의 발전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중국포장기술사시험회와 교류 활성화 되길**



이근중  
KANG DI TRADING 지사장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애경산업에서 포장 개발 및 포장재 품질관리 업무를 해 온 이근중 지사장은 현재 중국 상하이의 康迪(KD)進出口貿易 有限公司에서 포장 관련 기계 및 생산 설비 컨설팅을 비롯하여 한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중국의 포장재,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여년 동안 포장 개발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았다고 겸손하게 밝힌 이 지사장은 중국 포장 업체의 컨설팅을 위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지만, 20여년 동안 포장쟁이로 살아온 그에게도 포장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해 사전에 접해보지 않았던 낯선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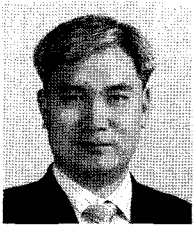
이근중 지사장은 현재 1년에 1회로 제한되어 있는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을 연 2~3회로 늘려 포장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가를 많이 배출해서 궁극적으로 포장산업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장 관련한 업계 또는 단체가 포장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서로 연관된 기술영역에서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다른 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접목하여 포장 산업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이근중 지사장. 그는 앞으로 중국 포장 기술사 협회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한편, GOLOBAL한 기술 교류를 통해서 포장소재, 기법, 가공기술의 개선 및 연구를 통해 국내 포장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국내 포장산업 세계화의 초석을 다질 이근중 지사장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공업포장협회 국제표준안 제정 도움 필터



박영철

한국중량물포장 대표

2010년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박영철 대표는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자적인 기술사에 합격하여 무궁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며 “포장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대표는 특히 여러번 실패를 할 때도 지속적으로 격려해 준 공업포장협회에 감사함을 표했다.

박영철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중량물포장은 1987년 9월 설립, 두산중공업의 발전설비와 산업기 자재제품 등을 주력으로 시작해 현재는 현대중공업에서 배전반, 고압차단기, 변압기 모터 등의 부품과 두산엔진의 선박엔진 및 발전기를 포장하고 있다.

물류포장은 제품생산자의 의도 및 요구대로 포장을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물류포장업들의 공동된 발언이 없는 상황이다. 상호 무분별한 경쟁으로 물류포장업들이 점차 영세화되어가는 추세인 현실을 보고, 기술사에 도전하게

됐다는 박 대표. 그는 앞으로 동종업체에서 여러 기술사들이 양성되어 명분이 있는 경쟁구도와 자체적인 기준과 경쟁력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영철 대표는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먼저, 일단 위치적으로 지방에 있다 보니 자료나 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술사 시험이 소비재 포장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박 대표는 “포장이란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기술사 합격 과정을 밝히면서 “향후 포장기술사 시험 분야에 물류포장이 보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표했다.

포장기술사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게 된 박영철 대표는 앞으로 물류포장의 존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공업포장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안 제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물류포장관련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명할 기준이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분쟁 발생 시 물류포장 관련하여 해명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포장기술에 박차를 가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기술산업으로 거듭날 것 이라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 그는 새로운 포장기술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술을 가진 기능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의 물류포장의 대부분이 수출관련 물량이 많은 것이 현실. 그는 외국에서 들어온 포장보다 최근 국내 포장의 기술적 격차가 더욱 많이 나는 것 같다면서 국내 물류 포장은 지속적으로 적정단가를

형성하여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조건의 포장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물류포장분야를 사랑하고 업계 발전이 위해 주력하고 있는 박영철 포장기술사의 청사진을 그려 본다.

### 친환경 포장 통해 포장산업 발전



박종원

대상(주)패키지연구소센터 매니저

“그 동안 포장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전 목표로 삼아 지금까지 노력하였으며, 이번 국가공인자격인 포장기술사 자격 취득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 생활용품회사에 입사, 포장개발에 대한 기초를 다진 박종원 매니저는 현재 “건강한 식품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비전을 가진 대상(주)에서 포장개발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장이라는 분야가 산업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종합전문분야인 탓에 경험을 통한 지식습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그는 전문적인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포장기술사에 도전하게 된다.

박종원 매니저는 준비 과정에서 전문서적의 이론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 경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실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회고 했다.

‘친환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포장산업에도 ‘친환경 패키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그 역시 포장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친환경이라고 강조한다.

박종원 매니저는 유통업체의 과열경쟁에 이끌려 포장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앞으로의 포장산업은 후진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관련 포장업계 및 관련 단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포장관련 단체 및 동종 회사와 정보 교류를 통하여 포장산업 발전에 큰 기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하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포장’과 ‘환경’ 고려, 패키징 산업 발전 일조



오재영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과장

2010년 포장기술사 합격자 가운데 오재영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과장이 느낀 기쁨은 남달랐다.

“그동안 포장기술사 시험에 몇 번의 낙방을 경험한 터라 더 긴장되었는데 많은 격려와 조건을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재영 과장은 현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포장재료 및 포장에 대한 정부위임 및 일반 시험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위험물포장검사, 포장폐기물(과대포장) 검사, 물류표준설비(LS) 성능검사, 식품용기·포장검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어린이보호포장용 용기검사, 진동충격에 의한 포장안정성시험(ISTA 등) 등에 대한 총괄 운영 및 지원을 맡고 있다.

포장과 관련하여 평소 업무와 관련된 편협한 수준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업무에 적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험을 준비했다는 그는 포장분야가 다제간 응용분야다보니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 빅히트 포장제품 개발할터



양제우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책임연구원

“지난 해 말부터 나름대로 준비해서 포장기술사 자격 시험에 처음으로 응시했었는데 필기와 면접을 한번에 붙으리라고는 생각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에 선배 기술사이신 팀장님과 차장님이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후배들이 응원해 주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양제우 책임연구원은 현재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에서 음료 패키징 관련 업무를 담당,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사내 팀장님, 차장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도전해 보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게 되었다”는 그는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 패키징의 분야가 광범위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지 막막했었다고 토로하면서 선배 기술사분들의 도움 덕분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 같다고 전한다.

양제우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더 많은 포장인들이 기술사로 발돋움해 업계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한 사람의 기술사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겠으며, 패키징의 특징으로 인해 빅 히트된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제우 포장기술사의 손으로 탄생할 ‘빅히트’ 제품, 기대해 본다. ☞

오 과장은 포장의 특성상 일상생활과의 밀접성으로 포장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오도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득어망전(得魚忘筌)이라고 상품 포장에 반영된 재료들의 물리적, 생화학적 기술 특성, 디자인 및 경제성 등 포장의 역할 및 기능들은 망각되고 결과론적으로 속 빈 폐기물로서만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거래의 대상으로서 시장의 일부를 구성함에 따라 패키징산업 역시 다변하는 글로벌 시장상황에서 이러한 환경 트렌드를 간과할 수 없으며, 패키징산업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재영 과장은 현재, 실제로 포장과 관련하여 이미 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법안 및 기술개발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는 물론 친환경포장 국제표준화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패키징산업은 ‘포장과 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라는 오재영 과장은 앞으로 미흡한 지식이나 포장기술사의 일원으로서 국내 패키징산업의 보호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덧붙여 그는 온라인 및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제조사, 판매사 또는 포장업체와 물류회사사에서 물품의 배송 중 파손으로 인한 책임 분쟁으로 곤란을 겪는 기업들을 봐 온 만큼, 분쟁을 줄여 줄 수 있는 안전운송 인증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각도에서 열린 시각으로 국내 패키징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력할 오재영 포장기술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